

破

깨뜨릴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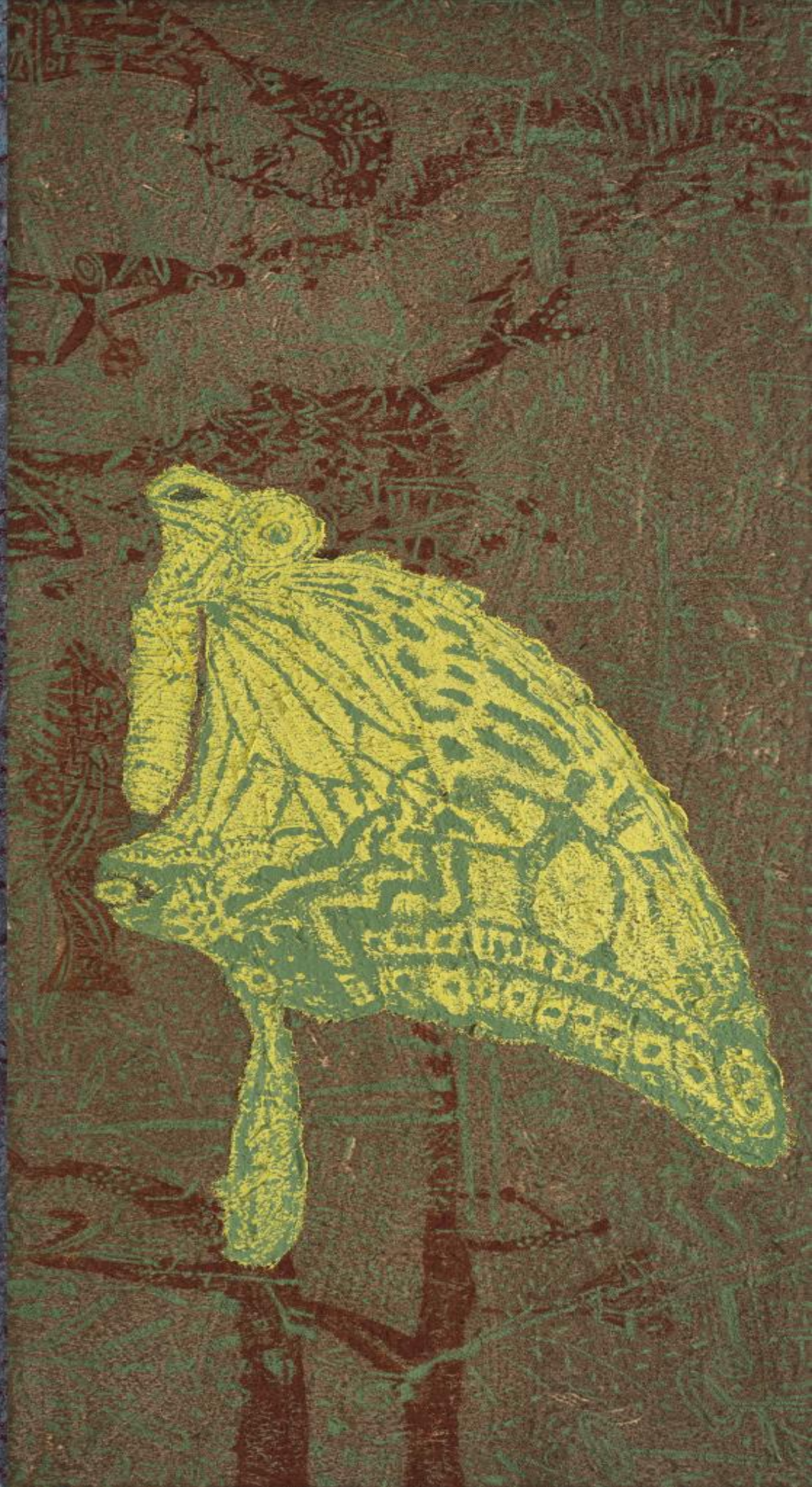
2024.
10. 30. WED
12. 8. SUN

Opening.
2024.
10. 30. WED
pm 17:00

손부남 SON BUNAM
네오아트센터 기획초대전

NEO Art

N1, 2관



손부남

Son Bu Nam



2001 충북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1983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

2021 제28회 개인전, 자모갤러리, 서울

2020 제27회 개인전, UM갤러리, 서울

2020 제26회 개인전, 로컬프로젝트,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외 25회

단체전 /

2022 진천공예마을 국제교류전 <공예로 二工八工번지>,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21 C+ 진천공예마을 국제교류전 <무풍화비>,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2021 진천공예마을 국제교류전 <예외상태로 살아가기>, 진천공예미술관, 진천 외 200회

수상경력 /

2006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존슨, 버몬트, 미국

2003 올해의 좋은 작가상, 무심미술회, 청주

상생 | 相生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생이라는 주제로 오랜시간동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작업을 이어나갔다.

‘원점으로 돌아와 본래의 점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의 출발선에 섰다.

작품은 특정 시기 혹은 영감으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의 소재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워졌으며,
질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일련의 조립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마치 ‘대체 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되새기는 것처럼 말이다.

30여년동안 본인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철학인 상생, 이를 바탕으로

창조에 대한 틀에서 한층 자유로웠음을 이번 전시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주기를 기대한다.

상생(相生) -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1

122x244cm,
Acrylic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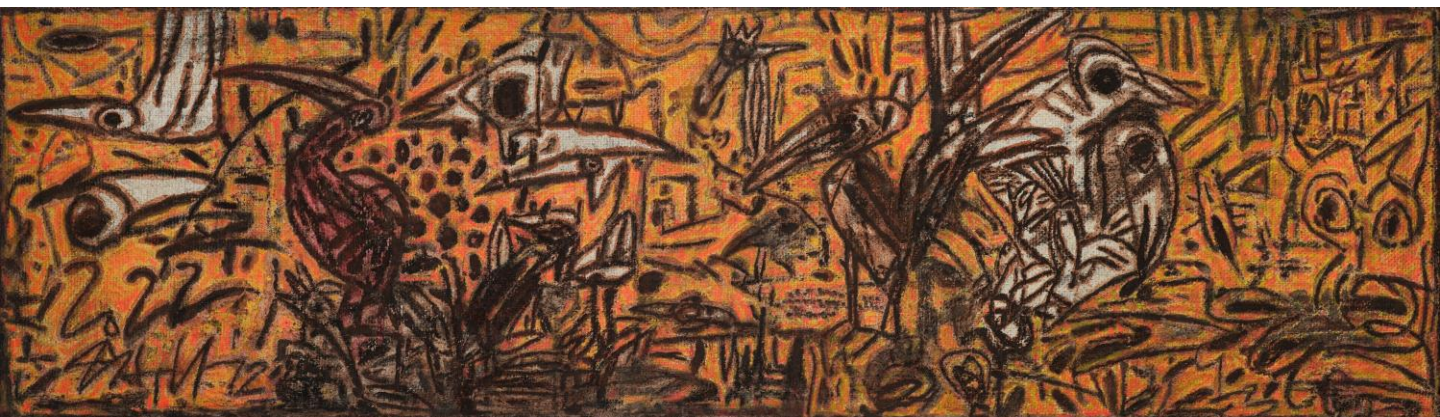


상생(相生) -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2

122X244cm,
Acrylic on canvas, 2023

상생(相生) -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3

60x244cm,
Acrylic on canvas, 2024





상생 (相生) -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4

244X122cm,
Acrylic on canvas, 2023



**상생 (相生) -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5**

244x122cm,
Acrylic on canvas, 2006~2024



破

깨뜨릴 파